

중환자실 환자에서의 발열에 대한 전향적 고찰

김신우[✉], 김춘관, 기현균, 이 혁, 김성민, 백경란, 송재훈
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

목적: 중환자실 환자에서 발열은 매우 흔한 증상으로 그 원인이 감염성인지 비감염성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 및 적절한 치료에 있어 필수적이다. 또한 국내의 현실에서 비감염성 발열의 경우에도 항생제가 남용되어 내성을 유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.

방법: 연구자들은 1998년 7월부터 8월까지 삼성서울병원 내과계 및 외과, 흉부외과,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38.3℃ 이상의 열을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발열의 원인과 예후 등을 전향적으로 조사하였다.

결과: 조사기간 중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393명의 환자 중 46명의 환자가 38.3℃ 이상의 열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의 발열의 빈도는 11.7% 이었고 Incidence density rate는 34 이었다. 발열환자의 평균연령은 48.5세였고 남녀 비는 33:13 이었다. 발열환자에서 감염성 질환에 의한 경우는 33례(72%) 이었고, 비감염성 질환에 의한 경우는 13례(28%) 이었다. 감염성 질환에 의한 발열환자에 있어서 지역사회감염은 9례(27%) 이었고, 병원감염은 24례(73%) 이었다. 병원감염 중 중환자실에 들어온 후 48시간이 지난 뒤 열이 난 경우는 7례였다. 전체 발열의 경우에서 감염성 질환으로는 폐렴(32.6%), 요로 감염(10.9%), 중심정맥관 연관균혈증(6.5%), 수막염(6.5%), 창상감염(4.3%), 폐혈증(4.3%), 복막염(4.3%), 심내막염(4.3%), 담도염(4.3%) 등이 있었다. 비감염성 발열의 경우 수술 후 발열(77%)이 대부분이었다. 비감염성 발열이 있었던 13례에서 모두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었고, 10례에서 3세대 세파계 항생제가 투여되었다. 사망한 경우는 8례(17%) 였고 이 중 감염성 2례는 모두 감염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었으며 비감염성 6례는 기저 질환으로 사망하였다.

결론: 중환자실환자의 발열은 72%에서 감염성 질환에 의하였으며 비감염성 원인의 경우 경험적 항생제가 남용되는 현상을 교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.

지역사회 및 병원내에서 발생한 황색포도상구균 균혈증의 비교 -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균혈증의 빈도 및 위험 인자-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임상병리학교실[†]

김의석*, 김홍빈, 박상원, 오명돈, 김의중[†], 최강원

목적 : 황색포도상구균 (*Staphylococcus aureus*) 균혈증은 고령층의 증가, 면역억제제의 사용, 침습적인 조작법 및 혈관내 장치 등의 사용 증가에 따라 임상양상이 변하고 있다. 저자들은 지역사회 및 병원내에서 발생한 *S. aureus* 균혈증을 분석하여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 (Methicillin-resistant *S. aureus*, MRSA) 균혈증의 빈도와 위험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법 :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중 혈액배양 검사에서 *S. aureus* 가 동정된 172 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 내원 후 48 시간내에 시행한 배양검사서 *S. aureus* 가 동정된 경우는 지역사회획득 감염으로, 48 시간 이후에 동정된 경우는 병원내 감염으로 분류하였다.

성적 : 1996 년과 1997 년에 발생한 111 례의 *S. aureus* 균혈증 가운데 23 례는 지역사회획득 감염이었으며, 88 례는 병원내 감염이었다. 지역사회획득 감염에서 MRSA 의 비율은 17% (4/23)였고, 병원내 감염에서는 50% (44/88)였다. 1991 년에서 1997 년까지 지역사회획득 MRSA 균혈증으로 확인된 15 명의 환자는 모두 적어도 1 가지 이상의 위험인자(평균 2 가지)를 가지고 있었다. 같은 기간에 병원내 감염으로 확인된 MRSA 균혈증 61 례의 감염병소는 피부 및 연부 조직 31% (19 례), 중심정맥도관 28% (17 례), 하부 호흡기 10% (6 례)였으며, 31% (19 례)에서는 원발병소를 찾지 못하였다. 병원내에서 발생한 MRSA 균혈증은 1 개월 이상의 항균제 사용, 과거 6 개월 이내의 수술력, 도뇨관 거치 등의 위험인자와 관련이 있었다.

결론 : 지역사회획득 *S. aureus* 균혈증 중 MRSA 가 차지하는 비율은 17%였으며, 지역사회획득 MRSA 균혈증은 모두 적어도 1 개 이상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.